



아이들이 스스로 학교를 만들었다 — 부안 백산초등학교

부안군 백산면에 자리한 백산초등학교(교장 김강주). 지난 1923년 6월 1일 개교한 뒤 여느 농어촌학교가 그러했듯이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겪으면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. 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이 농어촌학교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한 어울림학교에 선정되고 난 뒤부터는 아이들에게 배움을 전하는 학교를 넘어 아이들 스스로 꿈을 꾸고 성장해 가는 학교로 변하고 있다.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.

어울림학교 유형 중 '학교-마을 협력형'으로, 지역이라는 범주까지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키워냈기에 빠르게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. 특히 이 학교 특유의 적극적인 분위기로 인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 만큼 어울림학교 중에서도 단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